

광주지방경찰청, 수사 신뢰도 제고 간담회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정진배)은 지난 27일 광주청 무등홀에서 수사 신뢰도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수사이의심사위원 위촉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광주지방경찰청 제공>

조선대-우즈벡 직업훈련원 MOU



서재홍(가운데) 조선대 총장은 최근 대학 총장실에서 우즈베키스탄 직업훈련원 이브라기모프 원장과 MOU를 체결했다. <조선대 제공>

호남대 의상디자인학과 졸업작품 패션쇼



호남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학과장 김지연) 제33회 졸업작품패션쇼가 지난 27일 오후 호남대학교 광산캠퍼스 문화체육관에서 열렸다. <호남대 제공>

서강학원-KB국민은행 업무제휴 협약



학교법인 서강학원(이사장 윤형식)은 국민은행(호남북지역본부장 오평섭)과 최근 대학본부 회의실에서 업무제휴 협약식을 가졌다. <서명대 제공>

“남과 다른 방식으로 도전해야 이룰 수 있다”

제2기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일곱번째 강의 서경덕 교수

독도 등 한국 문화 알리기 수장 ‘한국 홍보 전문가’

“생각에만 머물지 말고 즉각 실행하세요. 남들과 다른 방식으로 꾸준히 도전한다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이루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제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한국 홍보 전문가” 성신여대 서경덕(40) 교수는 ‘웃는 상’이었다. 검색 양복 저고리에 풀어헤친 셔츠, 낡은 청바지 차림의 그는 옆집 아저씨처럼 푸근하고 정(情)이 가는 얼굴이었다. 예정된 시간 보다 다소 늦게 시작했지만 70여분 동안 이어진 열정적인 강연에 청중들은 웃음과 박수로 화답했다. 지난 27일 광주시 서구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에서 열린 ‘제2기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강연에서 서 교수는 “글로벌 에티켓을 갖고 늦더라도 남들과 다른 방식으로, 꾸준히 한국을 알리는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많은 국민으로부터 ‘한국 홍보 전문가’라는 정감 고마운 애정을 얻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 홍보 전문가”라는 애정을 얻기까지 그가 지금까지 이룬 성과는 눈부실 정도다. 신문 지면에 “한국으로 관광 오세요”라는 문구를 상단에 넣

고, 한반도와 동해, 독도를 한가지 색으로, 바로 옆 일본은 다른 색으로 그려 한눈에 봐도,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걸 외국인도 느낄 수 있도록 기발했던 뉴욕타임스 신문광고, 비빔밥 사진을 신문광고에 넣고 “오늘 점심은 비빔밥 어때요?”라는 문구를 담은 워싱턴 포스트 광고, 서 교수가 강연 내내 강조했던 것처럼 서 교수만의 기발한 방식으로 한국을 알리는 홍보활동은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네티즌과 함께 세계적인 미술관에 한국어 서비스를 정착시킨 일과 타임스퀘어에 있는 대형 광고 판을 통해 한국 문화를 알리기도 빼놓을 수 없는 그의 업적이다. 이날 강연에서 서 교수는 ‘한국홍보’라는 당시만 해도 전례를 찾을 수 없는 분야에 뛰어들게 된 계기를 전했다.

“지난 2005년 일본이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했다는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살고 있던 집을 하루아침에 빼앗긴 것처럼, 우리 땅을 빼앗아 가려는 그들의 행태에 가만히 있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날부터 세계 속에 당당하게 우뚝 선

한국을 위해 한국홍보 전문가가 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후원자가 없어 몇 달간 아르바이트를 한 끝에 겨우 광고비를 모아 첫 신문광고를 냈던 사연에 대해 가감 없이 들려줬다. 특히 지난 2월 14일에는 대중들에게 별란타인데어로 알려졌던 2월 14일이 안중근 의사가 사형선고를 받은 날임을 알려 큰 화제를 불러 모으기도 했다. 그는 뜻을 함께하는 국내외 네티즌들과 함께 안중근 순도장 대형 길게 그림을 뉴욕과 하얼빈 등 세계 주요도시에서 전시하는 월드투어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도 전했다.

지난 2009년 안중근 의사 10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영웅 프로젝트’ 1단으로 제작한 길게 그림은 가로·세로 30x50m 크기 큰 안중근 의사의 순도장이 찍혀 있다. 서 교수는 대한민국 영웅 프로젝트와 더불어 한국홍보에도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안중근은 테러리스트라고 규정할 일본 정부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를 전 세계에 함께 알려 우리의 영웅을 재조명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안중근과 독도, 이는 한국인이 지켜야 할 우리의 역사이자 우리의 영토입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



김문순 제일공단작업복 대표 ‘아너소사이어티’ 가입

<1억 이상 고액 기부자 모임>

1억원 이상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 15번째 기부자가 탄생했다.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8일 제일공단작업복 김문순(여·60·원곡) 대표가 1억원의 성금을 기부하기로 약정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향후 5년간 1억원을 기부하기로 약정하면서 아너소사이어티 15호 회원이자, 4번째 여자회원이 됐다.

그녀는 16년 전 광주에서 남편과 단둘이 점포를 시작해 지금의 사업장을 일궈냈다. 가난으로 시절을 겪었기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눔을 실천하는데 앞장서온 김 대표. 그녀는 지난 2006년부터 광주 광산구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매년 600만원을 기부해왔다.



김 대표는 “저 역시 크게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나누려는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지역 사회에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어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광주지역에서는 올해 신규 회원 2명이 추가돼 총 15명의 아너소사이어티가 등록됐다. 전국적으로는 509명여 가입해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 있다.

코바코 공익광고 전시회 ... 내달 2일까지 조선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사장 이원철)는 공익광고 캠페인의 지역 저변 확대를 위해 28일부터 6월 2일까지 광주 조선대학교 장미원에서 ‘2014 공

익광고 지역순회 전시회’를 개최한다. 지난 2003년부터 시작된 지역순회 전시회는 역대 공모전 수상작, 국내외 대표 공익광고 등 300여점이 지역민

에게 소개될 전망이다. 이번 전시회는 국내 공익광고 33년 역사를 한눈에 조망해보고 칸느, 클리오, 뉴욕페스티벌 등 세계 우수 광고제 수상작 및 미국, 일본, 중국의 공익광고를 전시하여 세계 각국의 다양한 공익광고를 함께 감상할 수 있다. /양세열기자 hot@

영광 출신 김빛내리 박사, NAS 회원 선출

<美 국립과학원>

기초과학연구원(IBS)은 RNA연구단 김빛내리(46) 단장이 지난달 열린 미국 국립과학원(NAS) 총회에서 외국인 회원에 선출됐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미국 국립과학원은 연차총회에서 기존 회원들의 추천을 받아 연구업적 등을 평가해 신규 회원을 선출하며, 국내 회원으로는 신희섭 IBS 인지 및 사회성연구단장, 이호왕 고려대 교수, 임지순 서울대 교수 등이 있다.

영광출신인 김 단장은 유전자 조절 물질인 마이크로 RNA의 생성과정과 생물학적 기능을 규명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국내 생명과학 분야 대표 연구자로서 2010년 국가과학자 선정, 세계적 생명과학 학술지 ‘셀’의 편집장으로 활동했다. /연합뉴스



박상철 호남대 기획처장

중환 우호인사 초청 간담회 참석

박상철 호남대학교 기획처장이 최근 서울 중구 주한중국대사관에서 열린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 초청 중환우호인사 초청 간담회에 참석했다. 중국정부 초청으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이세기 한중친선협회회장과 이부진 호 텔신라 사장 등 국내 정재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국 방문 일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방한한 왕 부장은 청와 대로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해 한중 관계 발전과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47 FAX 062-222-4938. 222-4918

화촉

- ▲이윤수·김영래씨 장남 종평(KJ광주 삼크)군 이은석(삼성화재 대리점 대표)·최광희씨 장녀 승희(서구 정보와 마을)양 = 31일(토) 낮 12시 농성동성당 062-366-7004.
▲김순자씨 장남 정권수군 정용숙(전 광주동신여고 교장)·신영자씨 차녀 윤미양 = 31일(토) 낮 12시 구 상록회관 웨딩홀 4층 예비뉴홀 010-3913-1111.
▲장중순(자영업)·최영숙씨 장남 원준군 오일록(해남군 해남읍 재무담당)·김미라씨 차녀 정연양 = 6월 1일(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동 사이닝스톤 모닝컨벤션 02-784-0000.

동창회

- ▲송원고 총동문화(회장 황명성) 열린 음악회 = 6월 3일(화) 오후 7시 송원대학교 학생회관 대강당 062-384-7447.
▲목포고 제5회 동창회(회장 이규중) = 6월 5일(목) 오후 6시 30분 금강산식당

062-224-0808.

알림

- ▲(재)한국소년보호협회 광산청소년자립생활관 호남지역 가출 및 위기 청소년 보호시설 = 무료숙식, 심리치료, 자립지원, 수시 입소가능, 12~22세 남자. 062-953-6101.
▲광주 여성의 전화 무료 상담 및 법률·의료비 지원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직장내 성차별, 이주여성 문제. 상담 062-363-0442~3.
▲광주종합사회복지관 아동가족상담센터 무료상담 = 아동심리치료 발달·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미술치료, 언어치료, 자녀양육상담 062-264-4370, 5308.
▲오치종합사회복지관 이주여성 한국사회 적응력 향상 무료 교육 = 요가, 웃음교육, 푸드아트테라피, 매주 월·수요일 오전, 선착순 20명. 062-267-3700.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장애차별 상담 = 국번 없이 1331, 우편 방문·광주시 동구 제봉로 광주은행 본점 6층.

- ▲한국실버복지회 생활비를 무료 상담 = 내용증명, 고소장, 호적정리, 가정 고민, 실버 결혼, 이별, 주례 서주기, 묘지리 바꾸기 등(실버에 한함) 062-365-8228.
▲비둘기 가정상담소 무료 상담 = 인터넷 및 전화 상담. 방문 상담은 예약제. 062-652-1366, 062-434-1366 www.gene-korea.com.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법률상담 = 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국번없이 132. 무료 법률 상담 및 법률구조. 면접 상담은 광주지방 검찰청 민원실 2층.

모집

- ▲광주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힘나는 학습클리닉’ 참가자 = 청소년들의 학습동기를 유발하고 학습 습관과 시간 관리를 효율적으로 배우고 적용할 수 있는 ‘힘나는 학습클리닉’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062-268-1388.
▲살레시안 가족합창단원 모집(당장 나금지, 지휘 김철수) = 살레시오 초·중·고 졸업자 및 그 가족이며, 합창에 관심있는

- 분이면 누구나 환영(부부 중 한분이라도 동문이면 됨), 연습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30분 상무중학교(운천저수지 옆) 010-3404-3712(단장).
▲무등 예술종합 평생교육원(국비지원 100%) = 교사를 위한 반주법, 리더쉽과 스피치, 뮤지컬 템덴스(일반부·자격증반), 음악치료 심리 상담사 자격증반, 미술치료 심리상담사 자격증반. 북구 두암2동 무등파크 1차 상가 2층 062-269-6669, 010-3606-0230.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려서비스 = 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입관용품무료지원, 장례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광주동구정신건강증진센터 자원봉사자 = 음악(악기)에 재능이 있는 자원봉사자 모집, 최소 6개월, 주 1회 2시간 가능 하신분. 062-233-0468.
▲사단법인 대한민국 특전동지회, 재난구호협회 광주광역시지부 특전사=예비역 및 화원 수시 모집 062-225-6500, 011-610-5575.

부음

- ▲김양래씨 별세 홍지상(광주 서부소방서)·성장(전남일보 정치부 기자)·혜정·혜순·희숙씨 모친상 = 발인 29일(목)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2분향소 062-231-8902.
▲장경호씨 별세 현우(한국화가)·웅·신영·소영씨 부친상 = 발인 29일(목) 진도 장례식장 2층 특실 061-544-4744.

- ▲강영운씨 별세 이강열(국제청소년교 육재단 이사장·전 전남도부교육감)씨 부인상 이상장·승채(SC제일은행 이사)씨 모친상 = 발인 30일(금) 광주그린장례식장 7호실 062-250-4455.
▲최봉완씨 별세 진(대통령리더십연구소장)·성(교양시장)·경은·진영씨 부친상 = 발인 31일(토) 일산백병원 장례식장 1호실 031-910-7444.

Advertisement for Mykumho funeral services. Text: '삼가 故人の冥福을 빕니다'. Includes details for four funerals: 101st, 102nd, 201st, and 402nd. Contact: 062-227-4000.